

미술전시는 그냥 예쁜 그림이랑 조각이랑 보기 좋게 진열해 놓고 구경시키는 게 아니다. 어떤 미학이나 철학을 말하기 위해, 또는 시대와 사회를 논하기 위해, 아티스트로 하여금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게 하거나 기존의 작품 중 새로운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큐레이터가 골라내서, 잘 배열해 관객에게 보이고 또 그 기획의도를 텍스트로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만큼, 그 기획 과정과 결과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기록해 놓은 것과, 관련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록과, 전시의 반응에 대한 뉴스, 잡지 리뷰 등의 기록이 모두 보관돼야 한다. 미래의 연구를 위해서 말이다. 미술관에 전시실과 작품 수장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료실과 도서관도 있는 게 그때문이다. 이런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쌓이면, 즉 아카이브 archive가 되면, 그것은 곧 미술사, 나아가 문화사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예술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눈을 뜬 것은 불과 10-2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40여 년 전부터 한국 현대미술에 관한 모든 자료를 끊임없이 수집해온 사람이 있었다. 그가 지금 김달진미술연구소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달진 소장이다. 그는 40여 년 동안 주요 아티스트에 대한 신문 스크랩부터 각 전시회 팸플릿과 도록, 미술잡지, 미술 관련 각종 책, 심지어 초중고 미술 교과서까지 무려 18톤에 달하는 자료를 모았다. 2000년 대 초에 연구소를 설립하기 전에는 박스에 담아서 집에 쌓아놔는데, 집이 박스로 가득 차서 발디딜 곳조차 없어서 나중에는 박스 위에 요를 깔고 자야했다고 한다. 게다가 2층에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박스 무게로 1층 천장이 휘어지는 것을 보고는, 때마침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즈음이라, 겁이 나서 당장 방을 빼라고 했단다. 결국 자료를 형님 집에 맡겨야 했고 연구소를 설립한 다음에도 옮겨올 자료가 너무 많아 그중 4.5톤은 옮겨오지 못했고 거기 계속 있다고 한다.

지금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한국 근현대 미술교과서'전은 김달진 소장의 수많은 자료 중에서 20세기 초중고 미술 교과서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전시 은근히 재미있다. 20세기 초에 일러스트레이션과 공예 실기 책에 가까웠던 미술교과서가 20세기 후반으로 오면 점차 인문학적 미술사와 미술이론을 담게 된다. 즉 20세기 한국에서 미술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제 군국주의 시절에는 탱크 그림이 교과서에 나오는 등 미술 밖 사회문화에 대해서까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 아카이브의 힘이다. (이 인터뷰 기사를 실었을 때는 '한국 근현대 미술교과서'전이 4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후 전시가 연장되어 5월 말까지 계속 된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길.)

김달진 소장은 연구소를 설립한 후 이런 자료들을 대중에게 계속 무료로 공개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화랑가를 자주 도는 사람이면 많이 보았을 월간지 서울아트가이드를 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9월 말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계약이 끝나면서 지금 홍대 근처에 있는 연구소 건물에서 나가서 새로운 곳을 찾아 헤매야 할 판이다. 김소장은 좀더 통큰 공공지원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정부는 가시적인 것에 주력하죠. 이를테면 비엔날레 같은... 한국은 지금 비엔날레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비엔날레가 많죠. 비엔날레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그건 소비적인 것이고 그 전에 미술 생산의 근간이 될 아카이브에 좀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요?"